

2014년까지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開通



포천시는 7월23일 시장 및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진행상황 및 현안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포천시, 민자고속도로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밝혀

포천시는 7월23일 시장 및 포천시의회 부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진행상황 및 현안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동북부 지역의 획기적인 교통난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이 꼭 필요하며 계획연도인 2014년까지 고속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인 포천시장은 구리시에서 고구려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장자호수공원 통과 등의 이유로 민자고속도로의 구리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시안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서울 방향으로 1km 정도 가량 우회하는 노선이 최적의 방안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경기도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현안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에너지 절약의 지혜 집중 홍보 나서

포천시 포천민속장터에서 지역물가 안정 캠페인

포천시는 최근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 7월25일 포천민속장터에서 에너지절약, 지역물가 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홍보물 2천부를 제작해 장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지 등을 나눠주면서 집중홍보에 나섰다. 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승용차 2부제 실시 ▶시정홍보 전광판 심야소등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실천하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명·컴퓨터 끄기·승용차

요일제 참여하기 등을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하수도로 공공용 쓰레기 봉투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일반소비자와 밀접한 57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는 특히 시민의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해 매월 물가정보, 개인서비스요금, 주유소가격현황을 조사해 포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서민경제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최근 국제유가 및 기타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따른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홍보하기 위해 7월25일 포천민속장터에서 에너지절약, 지역물가 안정 캠페인을 개최했다.

영북교육문화센터 현상설계 과업설명회

오는 9월2일 최종작품 마감후 당선작 발표

포천시는 지난 14일 공모를 실시한 영북 교육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에 대해 7월22일 시청 제2상강실에서 과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1일부터 22일 오후3시까지 2일간 응모등록을 마친 총 30개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약 1시간반

정도 과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영북 교육문화센터 현상설계는 23~24일 2일간의 질의응답을 거쳐 9월2일 오후6시에 최종작품을 마감한다. 당선작 발표는 9월경에 있을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초복맛이 어르신 숯골마을 방문

관인숯골마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나들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월17일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해 관인숯골마을을 방문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7월17일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의 심신건강 유지를 위해 관인숯골마을을 방문했다. 이날 농촌체험활동에 나선 어르신들은 관인농협 부녀회 어우러지재 사물놀이공연을 시작으로 숯골마을 체험관에서 감자캐기, 떡매쳐서 인절

미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이번 나들이는 관인 숯골마을의 아름다운 경치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체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최해 봉사자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는 지난 14일 공모를 실시한 영북 교육문화센터 신축공사 현상설계에 대해 7월22일 시청 제2상강실에서 과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나일해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은 지난 20년간 대기업에서 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 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온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금대가 (매출액)가 4,800만원 이상 이면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4,800만원 미만이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간이과세 포기: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 이 때 간이과세포기신고 하던 계속하여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환급 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해 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 2, 제78조 자료제공: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4~4487/4502~4507)

산업안전사고 예방

교각철근조립용 작업대 해체중 조립된 Pier 철근 전도

▶재해발생 개요 2004년 7월 0일 오후 16:30분경 OO OO(주)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내 교량 Pier 작업현장에서 목공인 피재자 2명이 벽식 Column 철근조립용 작업대 해체작업 중 조립된 철근 전체가 전도되면서 철근조립용 작업대를 덮쳐 1명은 작업대와 함께 추락 작업대에 깔려 사망하고 1명은 전도된 철근 사이에 끼여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발생원인 가. 철근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 전도위험이 높은 5m이상 Column수직 철근 조립시에는 이음부를 포함한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철근으로 보강하고 와이어나이프 또는 강관파이프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나이프 또는 강관 파이프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2단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선 조립된 수직철근 전도방지조치를 미흡시나, 안전작업을 위한 관리감독 소홀 전도 위험이 있는 철근 조립 부위의 작업대 해체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를 숙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 하에 작업하여야 하나, 관리감독 소홀 ▶중증재해 예방대책



가. 철근 전도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전도위험이 있는 수직철근 조립시에는 이음부를 포함한 철근 조립면 전체를 가새철근으로 보강하고 와이어나이프 또는 강관파이프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와이어나이프 또는 강관 파이프 등으로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2단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선 조립된 수직철근 전도방지조치를 미흡시나, 안전작업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재해발생 구조물과 같은 전도위험이 있는 철근 조립 부위의 작업대 해체작업 시에는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고, 구체적인 작업방법·순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관리감독 하에 작업 철저 자료제공: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㉗

이공국시

국수도 웰빙시대 개막... 이공국시 프랜차이즈 본점 개업



대표 이 혁

국물이 있는 비빔국수 한 그릇 어떠세요? 색다른 느낌이 입안으로 전해지는 이공국시는 국수 웰빙 시대를 알리는 프랜차이즈 사업가 이혁(사진) 대표의 첫 작품이다. 국수전문 프랜차이즈 이공국시 본점이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31-9번지에 지난 6월 문을 열었다. 이공(異功)국시의 의미는 남다른 정성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합성어이다. 이혁 대표는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정성이 들어간 깊이 있는 맛으로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시대 의대 소화가 내과 연구팀 이용한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는 '고추캡사이신 성분'은 체지방 억제 효과와 고추의 매운맛 성분은 위 염증 억제 작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둘째는 사골의 효능이다. 사골 육수는 다량의 칼슘과 콜라겐 등의 단백질을 각종 무기질 등을 가진 고영양식품이다. 특히, 겨울철 건강과 입맛을 되돌려주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다할 만큼 맛이 달백하고, 영양이 풍부하다. 프랜차이즈 이공국시의 주메뉴인 '국물이 있는 비빔국수'가 주연배우라면, '수육'과 '주먹밥'은 조연배우라고 할 수 있다. 비빔국수에 수육을 얹어 함께 곁들여 먹는 입안의 즐거움은, 비빔국수의 매콤한 맛과 수육의 달백하고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입안이 한층 더 즐거워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비빔국수나 칼국수 메뉴에 서비스로 함께 나오는 주먹밥은 이공국시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또 다른 맛의 즐거움중 하나이다. 주먹밥 하나에도 정성과 맛, 그리고 영양을 생각하는 이혁 대표의 마음이 고스란히 음식에 배어 나온다. 이공국시의 주 메뉴는 비빔국수로 6천원을 받고 있으며, 사골칼국수 6천원, 멸치칼국수 6천원, 잔치국수 5천원, 수육(대) 1만5천원, 수육(중) 1만2천원, 수육(소) 8천원, 아가국수 1천원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김치와 쌀 그리고 고춧가루는 국내산만을 고집하여 '국물이 있는 비빔

남다른 정성, 색다른 감동, 깊이 있는 맛 국물이 있는 비빔국수 "이공국시"

뜻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공국시의 주 메뉴인 '국물이 있는 비빔국수'는 자연을 담은 웰빙 음식으로 30가지가 넘는 천연 재료로 만든 정성이 남다른 음식으로 깊이 있는 맛을 느끼게 한다. 비타민과 탄수화물이 풍부한 영양 만점 자연을 담은 웰빙 음식으로 건강에도 좋으며, 맛의 비결이기도한 이공국시의 특별한 비법으로 소화가 잘되는 건강음식이다. 이공국시의 웰빙 효능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고추의 효능이다. 미국약회의(AACR)에서 연

국수'를 한번 맛 본 고객은 먼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해 다시 찾을 정도로 고객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이공국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예약 및 체인점 문의 031-542-1158) 이번 주말에 가족나들이는 광릉수목원 길을 지나며 산림욕을 만끽하고, 이공국시의 '국물이 있는 비빔국수'로 지난 한 주간의 피로를 푸는 것이 어떨까 한다. 조성구 기자 cho2182@paran.com



축적문소에서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300m에 위치한 이공국시 프랜차이즈 본점